

“부담없는 배우로 관객들에 다가가고 싶어요”

스릴러 영화 '도어락' 주연 공효진



배우 공효진(38·사진)이 스릴러 영화 '도어락' (이권 감독)으로 돌아왔다.

다음 달 5일 개봉하는 '도어락'은 혼자 사는 여성의 원문에 의문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시작되는 스릴러물이다.

공효진은 평범한 직장 여성 경민 역을 맡았다. 직장 근처 오피스텔에 사는 경민은 언제부터인가 퇴근 후 집에 오면 도어락 땀가 열려있고, 담배꽂이가 버려져 있는 등 낯선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고 불안에 떠다. 급기야 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공포에 휩싸인다.

공효진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법한 불안과 공포를 세밀한 감정으로 표현해냈다.

공효진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강한 여자가 아니라 평범한 캐릭터여서 끌렸다”면서 “스릴러 장르여서 연기가 단순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어려웠다”고 떠올렸다.

“놀람과 불안, 공포의 감정도 상충하로 나눠서 잘 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강약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제 연기에 갑갑함을 느끼면서 촬영했죠. 표현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작품은 '내 연애의 기억' (2014)을 연출한 이권 감독의 신작이다. 이 감독은 공효진의 데뷔작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김태용 감독)의 연출부 막내였다. 또 공효진이 주연한 영화 '미생:사라진 여자' (2016)를 연출한 이연희 감독의 남편이기도 하다.

공효진은 그동안 '싱글라이더' (2017), '미생:사라진 여자', '러브픽션' (2012), '미쓰 홍당무' (2008) 등 다양한 장르 영화에서 개성 강한 캐릭터를 선보였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2014), '질투의 화신' (2016) 등에서는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다만, 영화 출연작은 드라마만큼 흥행하지는 못했다.

“제가 드라마를 하는 이유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대중과 거리감을 좁히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인물을 주로 선택했죠. 반면 영화에선 그런 좋은 사람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싶어 상반된 캐릭터에 끌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업영화에 대해 욕망이 있었어요. 제가

나오는 영화에 대한 선입견이 굳어지기 전에 관객에게 좀 더 쉬운 배우로 다가가고 싶었죠.”

그는 이번 작품에서 단독 주연을 맡아 극의 상당 부분을 혼자서 끌고 간다. 공효진은 “오랜만에 하는 원톱 주연이어서 부담이 너무 컸다”면서 “혼자서 영화를 짊어줘야 하고, 영화가 공개된 이후 나오는 여러 평가를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게 너무 겁이 났다”고 털어놨다.

강아지와 함께 사는 공효진 역시 한밤중에 경비시스템이 오작동해서 '침입자'라는 경고음이 울릴 때 불안에 떠는 적도 있었다고 했다.

“관객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동안 상상만 했던 공포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올까 걱정이 큼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을 동반한 불안감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됐죠.” 공효진은 그래도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피가 마구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상미 감독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수상

다큐 '폴란드로 간 아이들' 연출

다음달 나주 빛가람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연출한 추상미(사진) 감독이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을 받는다.

이란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 중국의 시에페이 감독, 프랑스의 로랑 캉테 감독, 한국의 정지영·김동원 감독 등이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폴란드

받는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은 문화예술 분야를 집적적으로 육성하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인류의 평화공존과 인권신장에 기여한 작품이나 감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란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 중국의 시에페이 감독, 프랑스의 로랑 캉테 감독, 한국의 정지영·김동원 감독 등이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폴란드



로 보내진 1천500여 명의 한국전쟁 고아와 이들을 돌본 폴란드 선생님들의 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김성재 영화제 심사위원장은 “한국 현대사에 이슈를 제기하고 전쟁의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2018 전북인권영화제의 개막작으로도 선정됐다.

/연합뉴스

‘부모 빚투’에 우는 스타들

마이크로닷·도끼·비 등

부모 비위 의혹 연일 보도

고도의 도덕성 요구 '진땀'



마이크로닷 도끼 비

유명 연예인들의 부모 비위 의혹이 연일 보도되면서 가요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비판받는 건 부당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지난 가을 워너즈 출신 가수 핫핑크(본명 박은-29)는 부친의 사기 혐의로 의혹을 지켰다. 부친 박모 목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박 목사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핫핑크는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채널A '도시어부' 출연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은 20년 전 부모님이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누질랜드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8)는 어머니가 16년 전 중학교 동창에게 1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이 재조명되며 구설에 올랐다. 그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의혹을 부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았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6)는 과거 떡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님이 딸가게에서 쌀과 돈 등 2500여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태 파악에 나섰다.

마마무 휘인(본명 정휘인·23)은 친아버지가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공개되자 아픈 가족사를 공개하며 사과했다.

휘인은 “부모님은 2012년 이혼을 하셨다. 현재 저는 친아버지가 어디에 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접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들과 상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요계에선 사건의 진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있는 데다, 설령 부모가 죄를 지었다 한들 자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사로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산 지 오래인데도 당당히 욕먹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도 손가락질받는 건 만만치않”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공인(公人)이라는 데 비중을 두는 의견도 있다. 범 죄를 저지른 부모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자랐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자방	35 닥터 365 40 강남 스킨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UHD 숨터(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25 헬로킴지 동물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제3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1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kbc특집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죽어도 좋아 돌아보기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솔밭 김재동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0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빛동네 생필품 이야기)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재)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매혹의 광야 요르단과 이스라엘 4부 역사의 땅, 갈릴리〉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가 폴리	21:30 한국기행
08:45 랄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명당기행 4부 황금 닭이 알을 품었네, 금계포탄〉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30 원더볼즈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스페이시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25:0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한명숙의 동치미〉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9일(음 10월 22일 乙酉)

<p> 36년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만 한다. 48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하다. 60년생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다. 72년생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84년생 용기 뿐 만 아니라 참신한 발상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53, 80</p>	<p> 42년생 해묵은 문제점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54년생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66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78년생 치밀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90년생 가는 것에 비례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9, 52</p>
<p> 37년생 손발이 적적 맞아서 손조음을 더 하겠다. 49년생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61년생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이다. 73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 될 것이다. 85년생 포용력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94, 54</p>	<p> 43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55년생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67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다. 79년생 핵심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어야겠다. 91년생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써 일관해야 할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14, 04</p>
<p> 38년생 오로지 현안에 대해서만 몰두할 일이다. 50년생 계획대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니라. 62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알라. 74년생 지금은 급한 형세이다. 86년생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손을 쓰면 소용이 없다. 행운의 숫자 : 40, 71</p>	<p> 44년생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56년생 얼마나 깊어 다뤄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68년생 지극히 상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80년생 물러서가 아니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이니라. 92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35, 60</p>
<p> 39년생 남에게 말 못할 애로 사항이 생긴다. 51년생 적극적인 공격보다 더 완벽한 방어책은 없다. 63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는 형상이다. 75년생 급하게 뛰어들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겠다. 87년생 다각적인 관점과 인식이 절실히 요청 된다. 행운의 숫자 : 31, 57</p>	<p> 45년생 미세한 부분을 세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57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69년생 진출했을 때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81년생 상대의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장난이 보인다. 93년생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4, 58</p>
<p> 40년생 객관적 실상에 주목하여야 한다. 52년생 간발의 차이가 생애를 좌우할 것이다. 64년생 미로에서 헤매다가 간신히 길을 찾게 되는 이치이다. 76년생 확실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된다. 88년생 부주의 한다면 큰 일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91</p>	<p> 34년생 동쪽으로 진행 했을 때 능력이 극대화 될 것이니라. 46년생 잇비수하여 낮고 못함을 정화하기 어렵다. 58년생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로다. 70년생 진정시키느라고 애를 먹을 수다. 82년생 아무런 슬모가 없을 것이니 아예 버려라. 행운의 숫자 : 83, 85</p>
<p> 41년생 욕심을 낸다면 화를 당하리라. 53년생 제3자의 충고를 명심하자. 65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77년생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다잡아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89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8, 87</p>	<p> 35년생 멀리하는 것이 무방하다. 47년생 규칙적이어야만 현상을 감당하게 된다. 59년생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71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83년생 길보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75, 5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